'신대륙의 과실미와 구대륙의 구조감을 동시에!'

샤토 생 미셸 컬럼비아 밸리 리슬링

Chateau Ste. Michelle Columbia Valley Riesling

지역	미국 〉 워싱턴 주 〉 콜럼비아 밸리		
포도품종	리슬링 100%		
알코올	12%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2℃		
테이스팅 노트	워싱턴 컬럼비아의 대표적인 포도품종 리즐링 100%로 완성한 와인으로 크리스피한 사과의 아로마가 후각을 흥미롭게 하며 미네랄 노트의 캐릭터가 다채롭다.		

당도 DRY 1 2 3 4 5 SWEET

바디 LIGHT 1 2 3 4 5 FULL

제품설명

워싱턴 주에서 최대 면적의 와인 산지로 손꼽히는 컬럼비아 밸리는 프랑스 보르도와 같은 북위 46도에 위치하며 하루 중 17 시간 가량의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보르도'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다. 컬럼비아 밸리는 캐스케이드 산맥의 동쪽에 위치하여 사막과도 같은 건조한 기후 특성과 낮은 강수량으로 보다 집중도 있는 진한 풍미의 포도를 생산해낸다. 컬럼비아 밸리 리슬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No.1 리슬링 와인으로 풍부한 과실향의 미디엄 드라이 와인이다. 입안에서 넘치는 크리스피한 사과향과 미네랄 노트의 생동감이 다양한 음식과 조화를 쉽게 이루어 애호가들에게 'Best Value'와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89점
2021빈티지 와인 앤 스피릿 Wine & Spirits 88점 "Best Buy"
2021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88점 "Best Buy"

와이너리

1934년에 설립된 샤토 생 미셸은 미국 와인의 기준을 세운 최초의 워싱턴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이다. 1967년부터 유럽 전통 포도 품종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의 워싱턴 와인을 선보였으며, 현재 워싱턴 지역의 AVA 등급 체계의 기반이 된 혁신적인 와이너리로 유명하다. 샤토 생 미셸은 콜럼비아 밸리 AVA 지역 내 총 1,416ha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콜드 크릭 빈야드를 포함하고 있어 와인에서 노련미와 숙성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럽 와인 명가들의 합작을 통해 (콜 솔라레-이탈리아 안티노리, 에로이카-독일 닥터 루젠, 테네트-프랑스 가시에르) 워싱턴 주 와인 생산지의 위승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대륙 와인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였다. 샤토 생 미셸은 총 다섯 가지의 레인지를 통해 콜럼비아 밸리가 가진 다양한 매력의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조화를 담아낸 '콜럼비아 밸리'. 풍부한 과실미가 두드러지는 '인디언 웰스'. 콜럼비아 밸리만의 고유한 떼루아 특성을 여실히 나타낸 콜드 크릭과 카누 리지의 '싱글 빈야드' 레인지. 워싱턴이 추구하는 구대륙 스타일의 베스트 빈티지 와인인 '에토스'. 마지막으로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 와인 '메리티지 시리즈'로 완성되는 샤토 생 미셸의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베스트 밸류(Best Value)"와인으로 유명하다. 샤토 생 미셸은 단조로웠던 캘리포니아 위주의 미국 와인에서 벗어나 미국 와인 산업에 새로운 척도를 마련한 워싱턴 1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